



베리트신학대학원대학교
BERIT THEOLOGICAL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제 12강

이스라엘인의 삶 3-2

류아모스 교수



1-1. 가나안 종교

- 애굽에선 **태양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나일강의 홍수와 관련이 있음.
-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마르дук**이 공포를 일으키는 홍수와 같이 세상의 모든 혼돈을 만들어내는 바닷물의 여신 티아맛과 민물의 신 압수를 죽이고 세상에 질서를 가져옴으로써 최고의 신 지위에 올랐음.

1-2. 가나안 종교

- 가나안 거주민들에게는 애굽의 태양신이나 메소포타미아의 마르дук이 매력적인 신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과는 다른 종교를 갖게 됨.
-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이 아니라 '비'였으며, 따라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최고의 신이 될 수밖에 없었음.

바알



← 철퇴 (천둥)

← 창 (번개)



바알

2-1. 바알신

-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바알신으로 성경에서 그 이름이 가장 자주 나오는 우상의 이름이기도 함.
- 폭풍우의 신인 바알은 오른손에는 **천둥을 상징하는 망치**를 들고 있고, 또 왼손에는 **번개를 상징하는 창**을 들고 있음.
- 바알은 이 창과 망치로 **물의 신과 가뭄의 신**을 굴복시키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가나안 신화는 기록하고 있음.

2-2. 바알신

- 늘 가뭄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가나안 거주민들에게 바알은 매우 큰 유혹이었음.
- 가나안 지명과 인명을 보면 바알의 인기를 알 수 있음.

2-3. 바알신

-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 많은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바알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나옴(수11:17, 13:17, 15:9, 15:60, 19:8, 19:44).
- **바알 이름을 딴 인명**도 성경에 자주 나옴(창36:38; 민25:3; 삿6:32, 8:33; 왕상16:31; 대상1:49, 5:5, 8:11, 8:33, 8:34, 8:39, 9:40, 27:28; 렘40:14).

3-1. 누가 '비'의 주인인가?

- 하나님도 '폭풍'과 '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시29; 렘10:13; 슥10:1), 바알에 대한 요란한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혹이었음.
- 그러나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라 단지 조각된 우상에 불과할 뿐이었음.
- 이를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펼친 대결임 (왕상18: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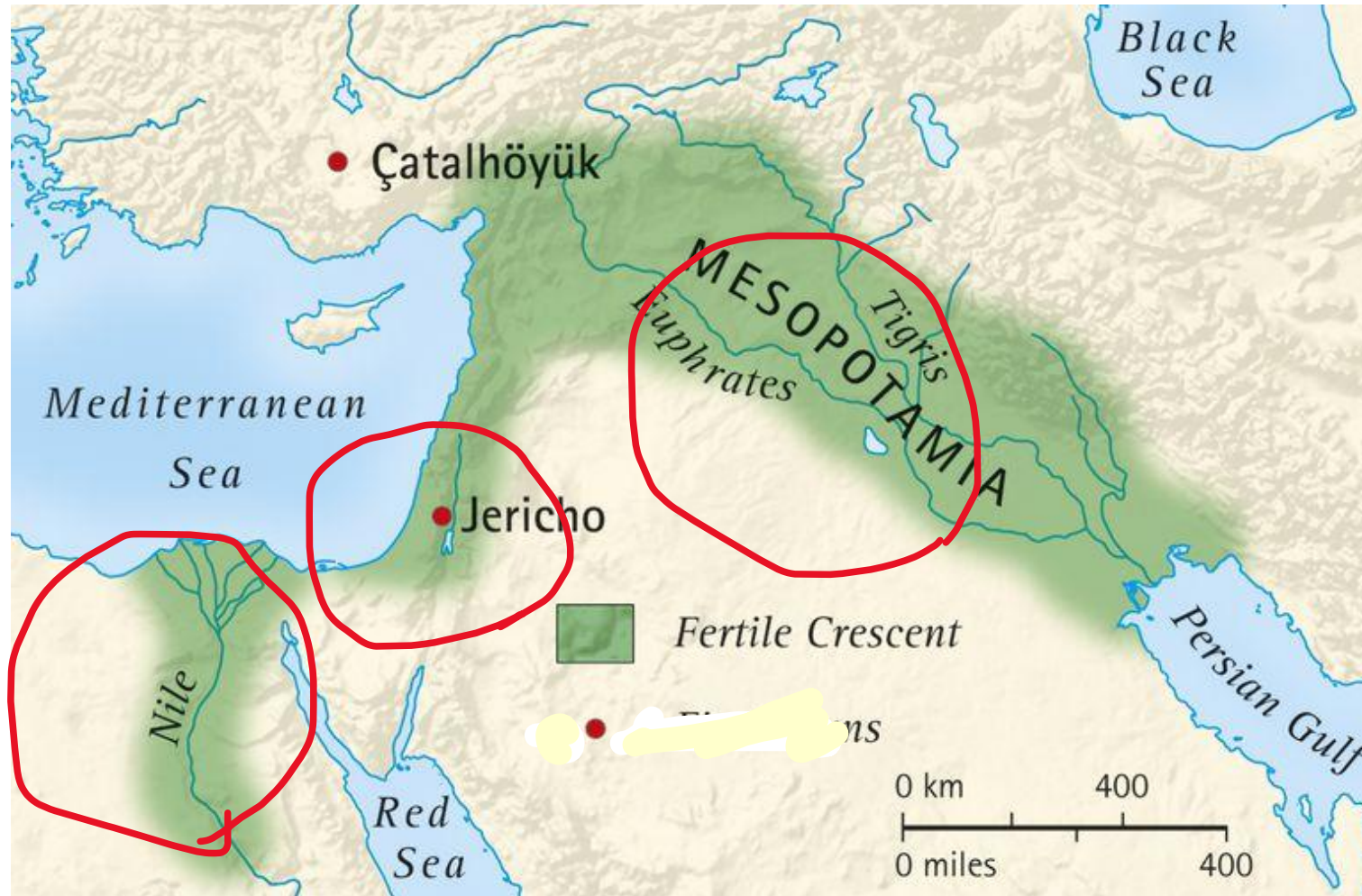
3-2. 누가 '비'의 주인인가?

- 이 대결의 핵심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비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신인가 하는 매우 흥미진진한 것이었음.
- 그동안 바알 숭배자들은 여호와를 '광야의 신'이라 비하하며 비를 내릴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고 비난하였음.

왕상18:27-29

27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28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애굽/메소포타미아/이스라엘 문화 삼국지



4. 문화배경사 결론

1. 자연환경의 영향
2.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3. 세계관의 형성
4. 역사의 형성
5. 성경의 형성